

거창민간인학살사건과 증언시의 논리

이 순 욱*

차 례

- | | |
|------------------------|-----------------------------|
| I. 들머리 | 2. <그 골짜기의 진달래>, 폭력의 초극과 서정 |
| II. 학살담론과 증언시 | |
| III.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형상과 의미 | IV. 마무리 |
| 1. 『冒瀆』과 병의(憑依)적 상상력 | |

I. 들머리

한국 근현대사를 가늠해 볼 때 국가가 주도하거나 국가의 암묵적 승인에 기댄 폭력은 대체로 극단적인 경향을 띤다. 특히 오랜 분단과 이념 대립의 상황은 반체제주의자를 적과 동일시하여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만큼 국가 권력은 폭력 그 자체로서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집단적 광기를 과도하게 표출하였다.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사건은 직접적인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이즈음 한국전쟁기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살 주체와 대상, 유형, 학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¹⁾ 대체로

* 한국해양대학교 강사

1) 학살 주체와 대상만 살펴 보더라도 피학살자는 평택이남의 보도연맹원인, 형무소

이들 연구는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선(戰線)의 변화와 지역에 따른 민간인 학살의 양상과 유형, 규모를 구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분단과 이념 갈등의 장벽 앞에서 은폐되어 온 민간인 학살의 역사적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The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²⁾은 국가권력의 폭력 직후 국회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희생자 위령 사업과 피해보상을 논의하고 있는 바³⁾, 전쟁기

수감자, 제2전선지역 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와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 민간인들이며, 학살 주체 또한 미군, 남한 국방군이나 그 산하 부대인 특무대 등 특별기관, 경찰, 서북청년단과 같은 비정규무장대, 이들과 중복되지만 4·3항쟁의 피해대상인 제주도 출신, 북한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좌익으로 대별될 수 있다. 강정구,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의 양태 분석』, 『전쟁과 집단학살』(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002), 44~45쪽.

- 2) 이즈음 “거창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거창민간인학살사건” 등의 여럿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이때 ‘양민’과 ‘사건’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양민’은 이념적 대립 관계 속에서 ‘좌익’을 제외한 민간인이라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선형적으로 내장된 양민이라는 용어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자 한다. 피학살자와 유족의 심리적 기저, 그러니까 거창민간인학살이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불가피한 피해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학살이라는 점과 학살 당시 마을 주민 모두를 ‘통비분자(通匪分子)’라 간주하고 전투력이 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무차별 살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거(暴擧)’가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폭거’보다는 학계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는 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건’이라는 용어를 수용하여 ‘거창민간인학살사건’으로 용어를 부러쓰고자 한다.
- 3) 최근 피학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위령사업의 기초작업으로 거창민간인학살사건 관련 신문기사, 국회속기록과 조사보고서(1951, 1960), 육군본부 군사기록보존실에서 보관되어 있던 재판자료를 묶은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한인섭 엮음,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I)-신문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II)-국회자료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III)-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아울러 거창역사교사모임 주최로 거창 지역에서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사업과 법적 해결의 방향을 점검하는 학술발표회를 잇따라 개최함으로써 학문적 접근에서 깊이를 얻고 있다. 거창역사교사모임 엮음, 『거창사건을 말한다-제1회 거창사건 학술토론회 발표집』, 거창민간인학살희생자추모 평화인권제위원회, 2001과 『제2회 거창사건 학술토론회 발표요지』, 거창종합복지회

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 가운데 비교적 실체가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이다. 더욱이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작전으로서의 학살⁴⁾이라는 점에서 피학살 민간인이 겪었을 고통과 유족들의 환장노래는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오늘날까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최근 잇따라 발행되고 있는 유족들의 증언⁵⁾을 포함하여 시와 소설, 수기, 무용극⁶⁾에 이르기까지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룬 문학적 영역은 매우 넓은 편이다.⁷⁾ 그러나 이즈음 문학 연구는 대체로 소설 쪽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⁸⁾ 이 논문에서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룬 신중신과 김태수의 작

관 소강당, 2001.9.14.

- 4) 김동춘, 『전쟁과 사회』(돌베개, 2000), 208~233쪽 참조.
- 5) 중앙일보사가 엮은 『民族의 證言』 4권(중앙일보사, 1983, 190~251쪽)에는 가해자와 유족들의 증언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부산일보사 기획연구실, 『居昌사건』, 『臨時首都千日』(부산일보사, 1985, 68~109쪽)과 부산매일 창간기념 특별기획, 『居昌 양민학살사건』, 『울부짖는 冤魂』(부산매일, 1991, 32~72쪽), 최근에 출간된 강평원의 『지리산 킬링필드』(선영사, 2003, 250~280), 정희상, 『이대로 눈을 감을 수는 없소』(돌베개, 1990, 168~216쪽)에서도 유족들의 증언을 엿볼 수 있다. 이즈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대책위원회에서 발간한 여러 지역의 학살 증언록 또한 관찰사료에서 볼 수 없는 피학살자 유족의 실상을 한껏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할 만하다.
- 6) 김봉희, <너울너울 나비야>, 『마산문학』 22집(마산문인협회, 1998), 302~322쪽. 최근 출간한 희곡집 『너울너울 나비야』(예니, 2004), 13~44쪽에 고쳐 실었다.
- 7)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전개과정을 다룬 표성흠의 『土偶』(현암사, 1992)나 노순자의 『산울음』(전예원, 1989), 개전상황부터 거창민간인학살사건과 이후 학살자에 대한 군법회의의 공판까지 다룬 송진현의 실화소설 『돌개바람』(동림, 1995)을 비롯하여 김교식의 장편 다큐멘터리 『光復二十年 14-居昌事件과 國民防衛軍』(계몽사, 1972), 후일담 기록물인 차석규의 『남부군과 거창사건』(창작예술사, 1988)들의 거창지역사료까지 포괄하여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문학적 접근이 잇따라야 하겠다. 거창 소지역의 민간인 학살에서 나아가 광복기와 한국전쟁기 거제도 지역의 민간인학살을 다룬 손영목의 『풍화』(뿌리출판사, 2000), 산청 지역의 민간인학살을 다룬 강희근의 『화계리』(문학아카데미, 1994)와 『소문리를 지나며』(문학아카데미, 1997), 김수복의 『智異山 타령』(월간문학사, 1977)를 포괄하여 경남 지역문학과 민간인학살의 문제를 아우르는 큰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 8) 정찬영, 『김원일의 <겨울 골짜기>론』, 『현대소설연구』 15호(현대소설학회, 2001.12); 조구호, 『역사적 비극의 문학적 형상화-『겨울 골짜기론』-』, 『문학한글』 15·16집(한글학회, 2002.12)

품을 대상으로 증언시의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⁹⁾ 역사적 사건을 문제삼은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데 보다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¹⁰⁾ 거창민간인 학살사건에서 보듯이 학살 주체가 국가권력일 경우에는 학살의 모든 기억이 조작되고 은폐되기 마련이다. 국가권력이 규정적으로 제시하는 해석과 담론으로 사건 자체가 왜곡되고 침묵이 강요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언시가 역사적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까닭은 매몰된 역사적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고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좁게는 경남 지역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넓게 보아 근대에 들어 이념 갈등의 장으로서 두류산(지리산)이 지니는 장소성과 역사성에 기대 전쟁기 민간인학살사건의 문학적 작업을 ‘두류산문학’의 한 범주¹¹⁾로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문학사가 한 나라라는 단일한 공간을 상정하여 지역의 역동적인 문학 현상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면, 지역문학사는 다양한 소지역 문학 공간들이 갖는 특수성을 염두에 둔다. 또한 소지역들이 지니는 다양한 관계와 상호 작용을 고려할 때, ‘거창’이라는 구체적인 소지역이 갖는 특수한

9) 연구대상은 김태수의 <그 골짜기의 진달래>(『거창문학』~제8호, 거창문학회, 1997), 신중신의 『冒瀆』(문학아카데미, 1990)이다. 김태수의 장시는 최근 발행한 시집 『황토마당의 집』(실천문학사, 2003.12) 103~122쪽에 재수록하였다. 이외에도 거창지역과는 직접적인 연고는 없지만, 두류산 자락에서 이저런 연유로 죽어간 민중들의 고난사에 각별한 눈길을 준 이병훈의 시를 들 수 있다. 증언사료와 역사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피의 날> 또한 증언시로서 손색이 없다. 이 시는 1951년 2월 11일 거창민간인학살사건 당일에 초점을 맞추되, 같은 해 3월과 4월 이 사건이 국회에 알려진 경과와 국회조사단에 대한 군부의 모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장시집 『智異山』(시세계, 1993)의 4부(143~166쪽)만을 구성하고 있어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을 다루고 있는 2부 <산새>와 더불어 두류산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단일하게 다룬 신중신과 김태수의 장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이기형의 <저 깃발 저 아우성>(『지리산』, 아침, 1988, 88~91쪽), 김상인의 <양민학살>(『거창문학』~제9호, 거창문학회, 1998, 83쪽) 들도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룬 짧은 시편들이다.

10) 광종원, 『文學과 歷史意識』, 『예술계』~1970년 여름호, 15~18쪽.

11)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빨치산문학이고, 지리산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을 다룬 문학과 산악문학 또한 두류산문학의 특징적인 자질들이다. 시와 소설, 수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편재되어 있어 일차적으로 두류산문학 관련 서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학 현상은 인접 지역인 두류산 언저리의 함양, 산청 지역의 문학 경험과 차별성을 지니면서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두류산이라는 지리 공간에 기댄다면 이들 소지역 문학에서 공통된 경험은 바로 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이라 하겠다. 이것은 경남지역문학사 서술에서 중요한 자질이다.

II. 학살담론과 증언시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과는 달리 학살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침묵이었다.¹²⁾ 이러한 학살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규정짓는 시각의 차이이다. “민간인 학살이란 사실 무근이며 양민이 아니라 ‘공비’를 토벌한 것”이라는 당시 국방부장관 신성모의 증언이나 “사살된 사람은 공비와 내통한 사람들이었으며 노유(老幼)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군의 한결같은 증언은 전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폭력 그 자체로서의 국가 권력이 내부의 적을 죽여도 좋다는 인식 하에서 민간인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학살했던 셈이다. 이러한 논리는 사건의 왜곡과 축소를 강요하면서 학살담론을 강화시켰는데, 특히 국회조사단의 현장조사 방해나 경자시민의 거 이후 봉분의 훼손과 유족들의 구금에서 이러한 논리가 두드러졌다.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할 때 국민의 ‘기억’을 장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비전투원인 어린아이와 노인이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학살담론에서 배제된 타자의 담론이다. 사건 자체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해 온 다수와 왜곡된 상황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호출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저항담론인 셈이다.

이러한 학살담론이 중요한 국가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일률적인 증언 조

12) 『한국사대사전』~장권(한동직 편저, 교육도서, 1990, 86쪽)과 국정 교과서를 보면 거창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은폐와 망각의 논리가 두드러진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민공통기본과정의 『국사』(상·하)와 심화과정의 『근현대사』~4종 교과서 어디에도 거창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관찰사료를 비롯하여 학살에 대한 국가주의적 시각을 내면화시켜 온 학살담론은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왜곡과 기억의 망각, 침묵을 거듭 강요하였다.

작에 기대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국가권력의 거듭되는 왜곡과 은폐에다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를 통해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확립하려 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빨갱이”라고 규정하면 어떠한 국가폭력이나 살인이라도 용인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레드 콤플렉스는 우리 사회에 거대하게 뿌리내린 채 우리의 역사와 삶을 질식시켜 온 반공주의와 냉전의식이라는 광기에 근거한 공격적인 성향을 의미하여, 왜곡된 공포심에 기초해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¹³⁾ 따라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서 사건 자체의 실체 규명에 앞서 사건을 거론하는 일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은 폭력의 독점, 정당성을 다투는 세력들이 벌이는 영토내에서의 체계적인 배제과정이며 동시에 영토내의 민간인들에 대한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의 과정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영토내 주권의 독점적 구축과정에서 도전세력에 대한 공격은 일종의 ‘국내 평정’(internal pacification) 과정에 해당한다. 특정 국가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강도는 영토내의 국내 평정의 과정에서의 도전과 충돌이 강력했었음을 증명한다.¹⁴⁾ 자본주의 근대 국가가 강제와 동의라는 이중적인 지배 원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전자본주의 국가보다 물리적 폭력에 덜 의존하지만, 동의를 통한 헤게모니적 통치를 구사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광복기 국가 형성의 시기와 한국전쟁기에 일종의 내전으로 비화될 만큼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통해 전면화되었다. 분단정권 수립 후, 레드 콤플렉스의 내면화를 통한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집단적 광기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제주 4·3항쟁과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논리는 근대성에 기반한,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에도 폭력성을 내면화시킴으로써 국민 형성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평정의 과정에서 영토내에 ‘이미 국민으로서 존재하는’, 곧 국민성을 갖고 있는 민간인을 국가의 정당성에 도

13) 강준만, 『레드 콤플렉스: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삼인, 1997), 7쪽.

14) 박명림,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한국정치학회, 2002), 88쪽.

전하는, 국민이 아닌 존재로 간주하여 집단 학살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구축과 정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공이데올로기의 자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문학 지형의 형성, 경자시민의거 이후 예술이 국가화의 기획 속으로 재편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문학적 증언으로 보기 어려운 김수복의 <智異山 타령>(1977) 시편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시인들의 자기검열도 한 몫 거들었다 하겠다. 소설 쪽의 성과이지만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김원일의 『거울골짜기』, 표성훈의 『土偶』가 민간인학살을 전면에 내세운 일은 민주화가 진전되던 1980년대 이후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 4·3항쟁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담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좌익세력의 선동이라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80년대의 민주화 항쟁과 더불어 좌익세력과의 관계를 강조하던 논리에서 벗어나 민간인들의 수난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살담론이 공적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증언문학은 이처럼 변화된 정치 사회적 지형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압력과 실정법의 통제로 형성된 공식적인 언술을 불신”¹⁵⁾하는 데서 가능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경험은 충분히 기록되지 못한 점이 많다. 그래서 관찰사료나 국가담론에서 엿볼 수 없는, 사건 당시 민간인들이 겪었던 죽음의 공포와 한없는 절망감을 기록한 증언은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매우 유용하다. 물론 증언자들에 따라 그들이 겪었던 내적 경험의 자질들은 다르게 구현된다. 더욱이 현장에서의 기록과 이야기되어진 기억 내용을 기록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⁶⁾ 따라서 시인은 증언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스스로의 입장에서 증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언은 어떤 경우에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⁷⁾

15) 정창연, 『한국 증언소설의 논리』(예림기획, 2000), 26쪽.

16) 제임스 홉스 지음(유병용 옮김), 『증언사입문』(한울아카데미, 1995), 16쪽.

17)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감정 변화를 추적하여 섬세하게 증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내적 경험에 대한 증언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해야 하며 많은 경우 연구자는 스스로 그 입장에 들어가 함께 느끼는 시도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흔히 ‘배버적인 이해하기 위한 사회과학’이라고 부른다. 실증주의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확실성의 보장은

증언에서 말의 진실성은 필수자질이다.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한 증언시는 대체로 문학적 수사보다는 사실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증언시에서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실제 인물을 등장시키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인물들이 구현하는 구어 형식은 독자들을 피하살 민간인의 현실과 삶에 밀착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 증언담론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동시에 이른바 문학의 민주화라 일컬어지는 공동체 주어를 가진다는 점이다.¹⁸⁾ 증언자와 시인 사이에는 일치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때 시인은 증언담론의 질과 내용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고난에 찬 증언자의 삶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증언시는 대체로 삶의 조건과 과정을 담는 서술시의 형식을 취한다. 이와 같이 개인은 사라지고 많은 독자대중이 역사적 현장에 일체감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곧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이 한 개인의 내적 경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인식함으로써 사건에 참여하는 셈이다.

이러한 증언시는 상황시(occasional verse)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기념시나 추도시, 만가들은 상황시의 하위유형들이다. 상황시는 주로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이거나 사회적인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¹⁹⁾ 한국사회의 제도화된 악덕과 국가폭력을 고발하는 데 효과적인 양식이라 하겠다. 경자시민의거와 광주민주화항쟁 이후에 상황시가 두루 양산되는 것도 책임감 있는 국가의 논리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또한 목적시로서 증언시는 증언자의 목소리와 시인의 발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독자들에게 역사의 재해석과 표준화된 공적담론에 대한 재성찰을 유도하고, 나아가 증언자와 독자대중의 수평적 결합을 유도한다. 그런 점에서 증언시는 ‘공동체 주어’를 지닌, 다분히 저항문학적 논리를 띤다.

없지만, 분석자와 분석대상이 서로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성적 인간이라는 인간성의 이해가능성의 끈을 놓고 추적하는 것이다.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23~24쪽.

18) 정경원, 『중미의 증언문학』, 『서어서문연구』 제29호(한국서어서문학회, 2002), 534쪽.

19) Alex Preminger·T.V.F.Brogan(co-ed.),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851쪽.

증언사가 단순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다기보다는 어떤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기억들이나 알고 있던 사람들, 목격했거나 참가했던 사건들, 그러니까 꽤 가까운 과거의 기억들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일²⁰⁾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증언시는 피학살자뿐만 아니라 유족, 나아가 당대의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재인식하게 만드는 살뜰한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은폐된 민중사의 진실을 복원함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III.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형상과 의미

엿가야국의 속지였던 거창지역은 경상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지역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인 까닭에 거창(居昌)이라는 지명이 뜻하는 바 ‘크고 밝은’ 평야를 품지는 못했다. 인근 지역인 함양, 산청, 함천과 함께 거창지역은 두류산, 덕유산, 황매산의 줄기가 겹겹이 울타리를 치고 있어 그 자체가 산에 파묻힌 크고 밝은 분지라 하겠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까닭에 한국전쟁기 빨치산의 근거지로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제 나라 군인의 총에 영문도 모르게 죽어간 보이지 않는 전선을 형성했던 지역이다.

두루 알다시피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국민방위군사건²¹⁾과 함께 전쟁기에 발생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의 취약성과 광신적인 반공주의, 일본군 출신으로 구성된 당시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들의 인간 존중의식의 결여와 하급 지휘관들의 ‘군기의 결여’, 특히 전과를 올리기 위한 무리한 작전 수행의 복합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그것은 중요한 국가범죄였으며, 동시에 전쟁범죄였다.²²⁾ 이 사건을 다룬 시편들은 대체로 서술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

20) 제임스 홉스 지음(유병용 옮김), 앞의 책, 14쪽.

21) 김동리의 <歸還壯丁>(1951)은 이러한 국민방위군의 기아와 참상을 증언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양영조는 국민방위군사건을 이승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직을 변경시킨 결과로 본다. 양영조, 『한국전쟁기 한국 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 『한국전쟁의 재인식-분단을 넘어 통일로』,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 50주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0.6.10,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12쪽.

다. 역사의 상처에서 비롯된 시인의 부채의식이 역사의 시간과 사건의 운명을 담을 수 있는 시의 장형화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³⁾ 서술시가 정서나 감정의 순간 파악이라는 짧은 서정시에 비해 훨씬 더 사회역사적 현실에 근접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룬 서술시는 가족사나 지역사, 나아가 민족사의 경험과 수난을 형상화하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시적 양식인 셈이다.

이처럼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룬 시들이 증언과 역사자료에 근거하여 사건의 실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더라도, 시인이 증언을 시화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거기에는 시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터박고 살며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가 또는 단순한 취재의 산물인가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학살의 현장인 거창 출신으로 실제 체험과 기억에 바탕을 두고 민간인학살사건을 전면화시킨 신중신이 거창에서 교사로 일하며 사건의 여진을 직접 목도했을 김태수²⁴⁾의 시는 증언자료만을 참고한 다른 시보다 각별하게 읽힌다.

김태수와 신중신의 증언시는 모두 시간 질서에 따른 연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의 전개 방식을 구비하고 있는 시간 형식의 장시²⁵⁾에 속한다. 또한 이야기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회상체를 채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회상체 방식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도, 이야기의 범위와 증언의 형상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신중신이 증언을 직접적으로 시화했다면, 김태수는 거창에서 살다 돌아간 김정교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추정²⁶⁾되는 화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증언을 간접적으로 풀어내

22) 김동춘, 『거창사건의 전개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1회 거창사건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0.10.21, 거창 전문대학교 강당, 17쪽.

23) 문선영, 『한국전쟁과 시』(청동거울, 2003), 16쪽.

24) 신중신은 거창고등학교를 거쳐 서라벌예대를 졸업한 후 거창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으며, 김태수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거창군 주상면 완대초등학교와 고제면 쌍봉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25) 문선영, 앞의 책, 34~35쪽.

26) 서강목, 『기억의 노래, 경험의 시』(해설), 『황토마당의 집』(김태수, 실천문학사, 2003), 136쪽.

고 있다.

1. 『冒瀆』과 빙의(憑依)적 상상력

신중신의 『冒瀆』은 마을이 형성되던 이른 시기의 설화(<말무덤 說話>)를 빌어 학살의 진원지였던 거창 신원면의 수난사를 먼 옛날, 능욕의 세월 병자호란, 물난리를 겪었던 나라잃은시대, 빨치산의 활동이 두드러지던 광복기, 그리고 다만 산에 깃들어 산 죄로 “이리 물리고 저리 쓸리는 들풀로 살다”(〈쓸리는 들풀〉) 학살당했던 한국전쟁기, 죽은자든 산자든 학살에 대해 말하려 들지 않던 세월을 거쳐 경자시민의거 이후 국가가 나서 봉분을 파헤치고 위령비문을 쫓아 땅속에 묻었던 날까지를 장황하게 펼쳐 놓는다.

(1)

이 봄이 의식을 흔들어 깨우는가
 눈 떠라 눈을 떠라 하고.
 커켜로 쌓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자욱한 硝煙
 화약이 촉발하는 금속성
 그것을 가진 자의 위험,
 그 위험스러움에 굴레를 씌우고
 진실로 살아 있음의 몸짓을 위해
 모든 사람은 마땅히
 목숨에 가해진 모독,
 갖가지 죽음의 사연을
 회상하며 말하라고 한다.
 —신중신, <序詞> 2 가운데서

(2)

우리는 이승의 젖줄로 뺄와 살을 얻었으므로
 同時代의 죄악에 대해
 말해야 한다.
 수치스럽더라도
 수치를 깨물어 가며
 저 지옥의 사연을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 신중신, <길고도 긴 밤> 가운데서

인용시에서 엿볼 수 있는 바, 침묵과 망각을 강요했던 국가권력의 폭압 아래에서 “잊혀질 만한쯤”의 세월이 지난 뒤에 시인은 증언구술사료와 역사문헌사료를 종합하여 “어금니 앙다물고 쟁여둔 말”을 “와그르르/쏟아”(〈때는 있는 법〉)내고 있다. 이러한 증언시는 빙의(憑依, possession) 현상으로 설명 가능하다. 빙의는 어떤 강한 힘에 지배되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힘에 조종되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목숨에 가해진 모독,/갓가지 죽음의 사연을/회상하며 말하라고 한다.”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 “목숨에 가해진 모독”을 증언하는 일은 살아남은 자의 의무이다. 이때 시인은 피학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재현하는 영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²⁷⁾ 이러한 피학살자의 직접적인 한풀이를 통해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 나아가 당대의 우리 모두는 과거의 역사를 성찰하고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적인 은폐 과정을 거쳐 온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과는 달리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사건 직후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대에 문학적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족들의 증언이나 학살 당사자들의 변론 외에 뚜렷한 문학적 성과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룬 신중신의 『冒瀆』이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에서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학살 담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1980년대의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연유한 바 크다.

(1)
 둔덕 위로 重火器가 자리잡았고
 군인들이 주위를 에워쌌다.
 누군가가 나서며
 <군경가족이 있으면 나오시오!> 해
 열댓 명이 우루루 빠져 나갈 때
 김생원도 다짜고짜로

27) 빙의가 무의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시인이 뚜렷한 자각에 기초하여 원혼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있는 까닭은 증언의 직접성과 진실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가족들의 등을 떠밀었다.

이들이 길로 나와 외막걸로 향하는 순간,
 질린 얼굴들 속에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대장님, 죽어도 한마디 하십시오.
 국민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 있소?>
 충성이 담이었다.
 잇달아 彈聲海濫이 휘덮었다.

그 시체더미 위에
 술가지를 날라다 덮고
 불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조명탄까지 쏘아 올리며
 시체를 뒤적거렸으나
 거기서 한 여인이 살아 남아
 훗날 만행을 증언한다.

- 신중신, <청연부락과 탄랑골의 죽음> 가운데서

(2)

10일 오후 5시쯤이었다. 안탄량(내탄) 밑 골짜기를 지날 무렵, 갑자기 사람들이 골짜기로 밀어 넣었다. 1백여명쯤 되는 피난민들은 불길한 김새와 살벌한 분위기에 놀려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때 군인 한사람이 군경가족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10여명이 우루루 몰려 나갔지요. 이들이 빠져 나가자 군인들이 골짜기 주변을 뺑 돌러섰어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때 내 옆에 있던 문판대씨(당시 40세)가 손을 번쩍 들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장님 죽어도 한 마디 하고 죽읍시다. 국민 없는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소?’

군인들은 문씨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 그때 갑자기 주위가 밝아집니다. 군인들이 조명탄을 쏘아가며 시체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더니 그냥 지나갑니다. 얼마뒤 사람소리가 나면서 시체더미위에 나무를 켜다 날랐어요. 내 몸뚱이 위에도 나무를 올려다 놓았어요.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골짜기는 금새 불바다가 됐습니다. 내 옷자락에도 불이 붙었지만 혹시나 들킬까봐 죽은 체하고 있었읍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뒤 골짜기 개울가로 기어가 허겁지겁 불을 껐지요. 그 길로 산청군 차황면의 시외가로 도망쳐 살아났읍니다. 남편과 친정 어머니는 그 골짜기에서 죽었읍니다. ……친정 어머니는 설에 딸네 집에 왔다가 변을 당하고.”

이상은 생존한 임분임씨가 증언한 바 있다.²⁸⁾

신중신의 『冒瀆』은 증언시의 요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²⁹⁾ 우선, 시인이 태를 묻고 성장했던 고향에서 직접 목도했던 사건을 시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이 “삶의 동시대에 일어난 것이기에 외면할 권리가 없었다”는 자각, 셋째, 역사의 그늘에 묻힌 이 사건을 노래하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나아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소망의식을 지녔다는 점³⁰⁾이 바로 그러하다. 또한 시집의 부제가 ‘은폐된 민중사의 현장 증언’이라는 점은 증언시의 개념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冒瀆』은 <序詞> 1~3과 본사(本詞)에 해당하는 3부작 <神院의 바람>, <시드는 풀잎>, <虐殺>, <後詞> 1~2로 구성된 장시이다. 시집의 4부를 구성하는 <拾遺詩篇-거창양민학살사건>은 일종의 후일담 서사로 살아남은 자들의 회한과 피학살자에 대한 진혼, 진실 규명의 의지를 담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증언은 구술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노래나 연설, 인터뷰, 공식·비공식의 대화들 모두가 포함된다.³¹⁾ 이 가운데 증언의 출처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개인적인 기록이나 인터뷰 자료이다. 인용시 (1)과 생존자의 구술 증언사료 (2)를 견주어 보면 (1)과 (2)는 큰 차별성이 없다. 그만큼 증언을 완벽하게 재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시화하고 있다. 신중신은 (2)의 증언자인 임분임씨처럼 보고자이자 기록자로서 사태의 한 가운데에 서서 스스로 체험자이자 목격자³²⁾로서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전모를 폭로하고 있는 셈이

28) 차석규, 『남부군과 거창사건』(창작예술사, 1988), 79~80쪽.

29) 정찬영은 증언소설이 작가의 체험 또는 증언을 바탕으로 체험적 당대이거나 한 세대 전의 과거를 다루고, 사회학적 방법과 문학의 융합이라는 형식적 중립성을 취하며, 역사적 진실성을 지향한다고 규정하였다. 정찬영, 앞의 책, 14~15쪽.

30) 신중신, 『역사의 한 장(章)을 밝히며』, 『冒瀆』(문학아카데미, 1990), 10~11쪽.

31) 제임스 홉스(유병용 옮김), 앞의 책, 12쪽.

32) 김오성, 『報告通信文學諸問題』, 『文學·批評』(조선문학사, 1947), 197쪽. 김오성은 보고통신문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실정과 사태에 충실해야 한다, ②관찰이나 조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표면적 조사와 전체와의 연관성을 통해 사회적 동태의 본질과 인민대중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③문학자가 몸소 보고자로서 기록자로서 그 사태 가운데 들어가서 스스로 체험자가 되며,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④개개의 사실을 수없이 조사 관찰하며, 수많은 투쟁을 수없이 체험, 목격하는 동안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통일하며, 문학적으로 연마하는 데서만 획득할 수 있다, ⑤정규적인 문학적 수업을 쌓은 기성 작가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싸우는 인민들 스스로의 제작이어야 한다. 위의 책, 196~198쪽.

다.

인용시 (1)은 1951년 2월 10일 탄량골의 참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2)에서 보듯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임분임씨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사실의 기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이 시는 “<대장님, 죽어도 한마디 하십시오./국민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 있소?>”라는 피학살자 문판대씨의 생생한 발화와 학살 주체의 발화를 작품 곳곳에 그대로 노출시킨다. 이는 화자의 감정적 진술을 유보시킴으로써 사실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려는 장치인 셈이다. 특히 임분임의 증언 (2)는 국가의 공식담론에서 밀려나 배제된 유족들의 주변부 담론으로, 이것은 발화되는 순간 국가 공식담론이 강요해왔던 침묵의 논리를 깨뜨리면서 저항의 서사가 된다. 유족의 증언 (2)와 학살 주체의 증언³³⁾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저항의 서사는 독자들에게 역사를 왜곡한 공식담론을 성찰하고 시정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2)가 보편적 언어로 감당하기 어려운 학살의 경험을 장황하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면, (1)은 그러한 죽음의 기억을 시적으로 응축시켜 문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형상화하고 있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려내면서도 에피소드 형식을 빌어 김생원 가족의 수난사를 카메라적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작품 중간 중간에 끼어드는 김생원

33) 居昌事件의 총살 집행의 직접 지휘를 내가 했습니다. 물론 상사의 명령에 의해 서죠. 居昌郡 神院面의 中嶺里·大峴里·蛙龍里 등의 마을 주민들을 그곳 국민 학교에 모두 모이게 했어요. 居昌경찰서 査察주임 俞鳳淳경위(전 국회의원)가 보낸 3명의 형사가 통비분자들을 가려냈어요. 면장 朴英輔씨(4·19후 유족들에 의해 피살)도 분리작업을 거들었구요. 군·경 등 가족으로 분리된 이외의 주민들은 산골짜기로 끌고 가서 사병들을 시켜 기관총으로 총살했습니다. 사살 후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것도 사실입니다. 또 가족들은 모두 불질러 태워 없앴고, 양곡도 운반하기가 힘들어 태워버렸어요. 처단한 주민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후일 군재에 회부되었을 때 나는 1백 87명이라고 증언했어요. 묘하게도 나의 군번 중의 끝 숫자가 1백 87로 나가고 있어 그 숫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군재 때 조사관이 현지에 가서 시체를 세어 보니까 6백명이 넘더라고 함디 다만, 어쨌든 나로서는 지금도 1백 87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공비토벌을 하던 국군이 이렇게 주민을 집단 총살한 것은 『未收復地域에 진주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민을 처단하라』는 작명에 따른 것입니다. 한동석 대대장이나 나나 모두 상부의 이 작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중앙일보사 엮음, 『제19장 居昌事件』, 『민족의 증언』 제4권(중앙일보사, 1983), 202쪽.

의 딸 순임이와 마을 청년 정수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유월, 그옥한 밤>, <人共治下>, <그 해 두 달간>)나 함천군 묘산 인근의 자지리재 골짜기 국민보도연맹원의 학살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임서방의 이야기(<生還한 사내>)들은 개인의 수난사이자 가족의 수난사이지만, 결국에는 거창 지역의 수난사이면서 한국전쟁기 전후방지역에 광범위하게 편재된 민간인의 수난사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인물 장치처럼 한 인물의 삶의 과정과 내력을 전경화시켜 서술하기보다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민간인의 수난사를 보여주고 그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끼어드는 에피소드는 학살의 비극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전시 후방지역에서의 적군 통치는
 피난수도 부산 정계에
 심대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정부에선 공비토벌 전담 11사단을 창설
 지리산·덕유산 殘匪를 소탕코자 했으므로
 신원은 어쩔 수 없이
 戰火에 휩쓸려 들게 마련.

그날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다.
 설 명절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낸
 유난히 매섭게 추웠던 겨울,
 얼어붙은 땅 위로
 싸락눈은 첫소리를 내며 굴렀고
 살을 에는 바람 앞에
 촌민들은 裸木 꼬락서니로
 마른 살결을 드러냈다.

- 신중신, <해방지구에서> 가운데서

인용시에서 보듯 신중신의 시는 무엇보다 실제 체험과 기억에 바탕을 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동화작용의 결과물이라 하겠다. 그것은 앞서 살폈듯이 『冒瀆』이 증언시의 요건을 두루 갖춘, 증언의 문학화를 의도한 목적시이기 때문이다. 학살의 과정과 상황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까닭에 과도한 증언 욕구와 격정적 진술들이 공존하지만, 그의 시가 증언의 단순 취재로 그치지 않는 것은 서정성에 있다. 이러한 서정성은 학살의 폭력성과 잔혹성에 대한 적대의식을 직

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차분하게 몰입하도록 이끈다. 그만큼 증언시는 증언의 진실성 못지 않게 증언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미학적 방법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

2. <그 골짜기의 진달래>, 폭력의 초극과 서정

김태수의 <그 골짜기의 진달래>는 화자가 유년의 기억을 회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경과와 후일담을 서정적으로 펼쳐 놓는다. 이 시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되 오히려 서정적 진술에 치중하고 있어 각별하게 읽힌다. 시인의 일터를 마산에서 거창으로 옮기게 만들었으며, “기교의 시”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자신의 시가 “한 편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꿈꾸듯이” 썼다³⁴⁾는 내력을 지니고 있는 <그 골짜기의 진달래>의 이야기 마디를 살펴보자.³⁵⁾

- ① <1950년 봄> 다섯 살인 나는 제주도를 거쳐 여수 순천을 거쳐 온 야산대가 밤마다 마을로 내려서는 가운데 수풀들의 수련거름을 들을 수 있었다.
- ② <그리고 여름, 또 가을> 오십년 사월 밤마다 야산대가, 아침에는 대동청년단이 마을로 들어서다 여름 전쟁이 일어나고 가을이 힘겹게 지나갔다.
- ③ <그 겨울의 초입> 풍금을 치던 붉은완장의 여선생님은 겨울 들어 산에 올라 떨기나무가 되었다.
- ④ <눈먼산> 야산대 큰삼촌이 다녀가고 마을은 국방색옷들의 군화발에 쑥대밭이 되었다.
- ⑤ <오십일년 정월 초하루> 토벌대가 마을로 들어서고 떠나면서 남은 부대가 밤 사이 약탈과 부녀자 검탈을 자행했다. 새벽녘 야산대가 술취해 쓰러져 누운 토벌대를 습격한 뒤 나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차황면 외가로 갔다.
- ⑥ <초나홀의 감악산> 새벽 감악산 기슭 청연부락 백성들을 학살하고,

34) 김태수, 『한 편의 이야기 시를 위하여』, 『황토마당의 집』(실천문학사, 2003.12), 141~142쪽.

35)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전모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형상화 방식의 측면에서 김태수의 시를 유난히 살피는 것은 다른 시편들에 비해 그 형상화 방식이 뛰어난 까닭이다.

밤티재를 넘어 덕산리, 청수리, 중유리, 대현리, 와룡리, 과정리 6개리를 토끼몰이했다.

- ⑦ <초닷새와 옛새 사이> 토끼몰이로 갇힌 신원초등학교 교실은 검은 공포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골짜기로 몰린 백성들은 중음신이 되었다.
- ⑧ <한 사람> 조해권 전도사가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았다가 맨나중 쓰러져 땀먼저 불탔다.
- ⑨ <살아 남아 부르는 환장노래> 토벌대의 폭거에 살아남아 환장노래를 부른다.
- ⑩ <그 골짜기의 진달래> 오십사년 삼월 삼짓날 영킨 주검들을 추스르면서 온 마을이 미쳐 울부짖었다. 칠백오십둘 백성들의 혼백이 골짜기 진달래로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이 시는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 이후 산으로 숨어든 야산대의 활동을 압축적으로 다름으로써 민간인학살의 참상을 예고하고 있는 <1950년 봄>에서부터 1954년 3월 삼짓날 피학살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다룬 <그 골짜기의 진달래>까지 전체 10개의 이야기 덩이를 지니고 있다. 제목인 “그 골짜기의 진달래”는 피학살자들의 핏빛 원혼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피울음의 상징이다.

시인이 역사적 사료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거창민간인학살을 시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집단을 향한 보편적 메시지”³⁶⁾이다. 전쟁 상황에서 국가가 자행한 거대한 폭력에 대한 “비판”과 중음신(中陰神)으로 떠도는 원혼들을 위무하고 은닉되어 표류하는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여 교훈으로 삼으려는 “예언”적 전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증언시의 보편적인 주제이다.

나는 그때 겨우 다섯 살이었다.
제주도를 거쳐 여수 순천을 거쳐 온
선명한 피의 그림자, 내몰린 자들은

36) 강준식은 증언문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증언문학의 관심사는 오히려 증언을 통해 새롭게 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쏠려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특정 개인보다는 집단을 향한 보편적 메시지가 되기를 지향한다. (...) 증언문학에는 **비판과 예언**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강조-글쓴이) 강준식, 『증언문학의 잣대』, 『문예중앙』 1993년 겨울호, 468~469쪽. 아울러 우리문학사에서 증언문학이 허술한 까닭을 정치적인 환경과 기록이나 사료의 부족이라는 우리 역사의 특수성에서 찾았다. 위의 글, 470쪽.

더 깊은 산속으로 숨고
그들을 품은 산들은 몸을 떨었다 바람은
꼭 남에서 북으로 불어야 하는지
어린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얗게 흰 구황의 쑥이 대궁 세우고
수직으로 날아오른 노고지리 소리에도
배고픈 보리누름의 한나절
한 조각 밀기울떡의 그리움 너머
이삭 팬 보리들이 더디 익을 때
(…)

그것은 비극이었다 그때 나는 어렸지만
밤마다 산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야산대
수풀들의 수렁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 <1950년 봄> 가운데서

“수풀들의 수렁거림”에서 예감할 수 있는 비극은 이데올로기의 바깥에 놓여 있는 민간인의 학살로 구체화된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단순히 참상의 증언으로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적 상징을 작품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에게 서정 뒤에 숨어버린 이야기를 재구성하도록 이끈다. 단순 회상의 방식으로 걱정과 분노를 서정적으로 응축하여 표출하되, 재생된 과거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게 되는 셈이다.

학살당한 백성들은 야산대와 토벌대의 “아무편도 아니었”으며, “나라의 은혜에서 너무나 멀어져/죽지못한 목숨들”이었을 뿐이었다. 시인은 광복기 야산대의 활동을 시의 첫머리에 제시함으로써 다가 올 민간인 학살의 비극을 예감하는 구성 방식을 취했다. 이야기 마디 ⑤~⑨는 바로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룬 시편들이다.

(1)
감악산 기슭 청연부락, 희미하게
호룽불 켜지자 문 부서지는 소리
장독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외마디소리
불길은 소리들 위로 덮겐 잠위로
너울거렸다 그 위를 덮치는

엠-1 소총 공복는 소리
 속옷차림의 백성들은 이미 들짐승이었다
 획 코끝을 스치는 피비린내
 —김태수, <초나홀의 감악산> 가운데서

(2)
 탄광골에서 죽은 아저씨가 손을 번쩍 쳐들었다
 보소 대장님, 죽어도 말 한마디 하고 죽읍시다
 백성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있소
 총알이 죽은 이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의 손이 풀썩 아래로 떨어졌다
 엄마등에 얹혀 죽은 아기가 아장아장
 낡은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 총알들이
 무수히 어린 가슴을 뚫었다 아가의
 발가락이 파르르 떨리다간 이내 축 늘어졌다
 검은밤은 검은 공포들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나절, 그들은
 국방색에 둘러싸여 산으로 갔다
 뒤이어 골짜기는 우레소리로 흔들리고
 오오. 우리의 살붙이들은 겨울 박산골 골짜기를 휘도는
 씨락눈이 되었다 우우우 바람소리로 떠도는
 중음신이 되었다

- 김태수, <초닷새와 옛새 사이> 가운데서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태우는 삼광(三光), 삼진(三盡) 전략을 구사한 전형적인 초토화 작전이었다.³⁷⁾ 이것이 이른바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이다. 견벽청야 작전은 꼭 지켜야 전략거점은 벽을 쌓듯이 확보하고, 부득이 적에게 내주어야 할 지역은 인력과 물자를 이동하고 건물을 파괴하여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말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학살자는 “박산골 골짜기를 휘도는 씨락눈”이며 “바람소리로 떠도는 중음신”일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사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해원(解冤)곳으로 볼 수 있

37) 김동춘, 『거창사건의 전개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1회 거창사건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0.10.21, 거창 전문대학교 강당, 11쪽.

겠다.

이러한 요구를 환기하는 방식이 장황하게 펼쳐 놓은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서정적인 이야기하기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신의 시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김태수의 시는 학살의 낱낱을 재현하기보다는 서정 속에 현장의 구체성을 녹여냄으로써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형상화한다. 서사구조는 있으나 이야기의 큰 가닥이 뒤로 물러 앉고 서정이 이야기 내용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장황한 학살의 경험을 비유와 상징에 기대 독자의 문제의식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극을 환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낮지만 서정적 진술이 오히려 비극적 정서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소리들이 하늘을 찌를 때
 찌르는 소리들을 갈기갈기 찢으며
 사격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한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늘을 받치고 있었다
 소야마을 전도사였다
 등에 구멍이 뚫리고 가쁜숨을 몰아쉬면서도
 아이들을 꼭 움켜 안았다 그리곤
 비스듬히 넘어간 그의 이름은
 조해권 전도사, 죽음 위로 장작더미 쌓이고
 국방색 드럼통에서 쿵쿵 쿵쿵 기름이 부어지자
 검은 연기가 가려버린 골짜기의 아침나절
 얼어붙은 계곡을 떠나 아이들은
 무엇이 되었을까 가장 먼저 하늘로 가
 아기천사가 되었을까

조해권, 그는 맨나중 쓰러져 맨먼저 불탔다
 하늘에 고할 수 없었던 그의 죄들은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 김태수, <그 골짜기의 진달래>8. 한 사람>

인용시는 신중신의 시와는 달리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서술하되 오히려 서

정적 진술에 치중하고 있다. 때문에 증언을 직접적으로 시화한 『冒瀆』에 비해 증언시로서 미흡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판단은 증언의 내용보다는 증언의 형식에서 비롯되는 바 크다 하겠다. 그러나 발화의 태도에서 거친 증언과 정제된 증언이 있듯이, 인용시는 낱낱의 증언 내용을 서술하면서도 서정성을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서정성이 증언을 회색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증언을 서정 속에 융화시킴으로써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 비극적 정조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증언을 간접적으로 시화하는 방식은 긴박한 상황을 잠시 유예시키는데, 이러한 지연과 유예는 독자들에게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신현덕씨의 증언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바, 소야 마을 조해권 전도사의 죽음은 숙연하기까지 하다. 그의 기도는 비단 자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학살의 위협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가 지닌 죄의식은 인간존재의 숙명적인 원죄의식이다. 신과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전도사의 자책감, 그러니까 “하늘에 고할 수 없었던 그의 죄들”은 오히려 학살 주체의 만행을 더욱더 부각시킨다. 따라서 <그 골짜기의 진달래>는 서정과 서사의 조화를 통해 거창민간인학살사건 당시 희생된 원혼들을 진혼하는 노래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환장노래³⁸⁾라 하겠다. 동시에 은폐된 민중사를 복원하려는 역사화 작업이기도 하다.

38)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상처를 대변해 주는 말로, 1954년 3월 합동묘소를 만들 당시 대현리 임채화씨의 증언 가운데서 뽑았다. “삼월 삼짓날에 이장일을 받았다. 술김에 발인제를 지내 놓고 박산골의 시신을 수습하니 꼭 통조림 같았다. 장작을 깔고 시신을 놓고 이렇게 계속 포개어 쌓은 후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밤새 태웠는데 해골이 별장게 달아 올랐고 우리들은 죽어도 울지 말자고 맹세했으나 그게 되지 않았다. 맷골덥은 같이 죽는다고 불 속에 뛰어들고 그게 바로 환장노래였다. 김태수, 『통한의 세월, 생존자 및 유가족들의 증언』, 『거창문학』 3집(거창문학회, 1990), 75~77쪽.

IV. 마무리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한국전쟁기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억의 망각과 침묵을 강요했던 학살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시화한 신중신의 『冒瀆』과 김태수의 <그 골짜기의 진달래>를 대상으로 증언시의 논리를 고찰하고자 했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주의적 시각을 내면화시켜 온 기존의 학살담론이 적극적으로 내세운 바는 바로 침묵의 논리였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룬 증언시는 증언자의 목소리와 기록적인 요소, 시인의 발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이러한 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와해시키며, 독자들에게 역사의 재해석과 표준화된 공적담론에 대한 재성찰을 유도하고, 나아가 증언자와 독자대중의 수평적 결합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신중신의 『冒瀆』과 김태수의 <그 골짜기의 진달래>는 ‘공동체 주어’를 지닌, 저항문학의 성격이 다분하다.

둘째, 증언시에서 증언이나 기록적인 요소가 현장성과 설득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이기는 하지만,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신중신의 『冒瀆』은 ‘은폐된 민중사의 현장증언’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는 바, 병의적 상상력에 기반하여 서정성과 아울러 과도한 증언 욕구, 격정적 진술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증언의 격정성이 두드러지는 까닭은 시인이 증언의 전달 내용과 은폐된 기억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 김태수의 <그 골짜기의 진달래>는 서정 속에 학살의 기억을 녹여냄으로써 오히려 비극적 정서를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그만큼 김태수의 증언시는 증언과 문학적 형상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문학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셋째,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룬 증언시는 한결같이 전쟁기 민간인학살의 문제를 국가적 관점보다는 피학살 민간인의 시각에서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사건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촉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증언시는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폭로함으로써 인권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담론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문학적 형상

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의 논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증언의 진실성은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깨움으로써 우리들 모두가 학살의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을 돌리며 외면해 왔던 현실을 반성하고, 은폐된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적인 차원에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나아가 당시의 군 조사보고서나 학살에 참여했던 지휘관과 사병들의 증언, 미군사고문단의 자료들을 찾아 집단학살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 셈이다. 특별법의 제정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고 할 때, 국가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할 책임의 무게 또한 가볍지 않다.

두루 알다시피 한국전쟁기에 자행된 민간인 집단학살은 “알려지지 않은 전쟁”으로 불릴 만큼 범위가 넓고 비극의 상처 또한 깊다. 이 논문에서는 증언시를 중심으로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루었지만 앞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시와 소설, 희곡, 수기, 르포르타주, 다큐멘터리들의 인접갈래를 아우르는 작업이 필요하며, 시기와 범위 또한 전쟁기 거창 소지역에서 나아가 광복기와 전쟁기에 자행되었던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폭을 한껏 넓혀야 하겠다. 다양한 갈래에서 드러나는 형상화의 차이와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거창민간인학살을 다룬 문학담론이 지닌 고유성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문학과 폭력’이라는 큰 틀에서 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을 비롯하여 경자시민 의거와 광주민주화항쟁의 문학적 성과를 폭넓게 살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거창민간인학살사건, 지역문학, 국가폭력, 집단학살, 국민형성, 증언시, 학살담론, 신중신, 김태수

참고문헌

1. 1차 문헌

- 김수복, 『智異山타령』, 한국문학사, 1977.
 김태수, <그 골짜기의 진달래>, 『거창문학』 제8호, 거창문학회, 1997.
 신중신, 『冒瀆』, 문학아카데미, 1990.
 이기형, 『지리산』, 아침, 1988.
 이병훈, 『智異山』, 시세계, 1993.
 『거창문학』 외 경남 소지역 문예지

2. 2차 문헌

- <거창사건 당시의 死亡者 名簿>, 『거창사건의 진상규명 및 법적 해결』, 서울대 학교 법과대학, 2001.12.
 『거창양민학살사건 판결문(1951.12.16)』, 『거창사건의 진상규명 및 법적 해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1.12.
 『光復 22年』, 혜명출판사, 1968.
 강정구, 『전쟁과 민간인학살 : 20세기 현황과 21세기 전망』, 『전쟁과 집단학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002.
 강정구,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의 양태 분석』, 『전쟁과 집단학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002.
 거창역사교사모임 엮음, 『거창사건을 말한다』, 거창민간인학살희생자추모 평화 인권제위원회, 2001.
 김교식, 『光復二十年 14-居昌事件과 國民防衛軍』, 계몽사, 1972.
 김동춘, 『거창사건의 전개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1회 거창사건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0.10.21, 거창 전문대학교 강당.
 김동춘,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전쟁과 인권-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자료집, 2000.6.21, 프레스센터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김봉희, 『너울너울 나비아』, 『마산문학』 제22집, 마산문인협회, 1988.
- 김삼웅, 『해방 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 1996.
-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 김오성, 『보고통신문학 제문제』, 『문학비평』 제1호, 1947.
- 김주완, 『한국전쟁 전후 경남지역 민간인학살의 진상』, 『전쟁과 집단학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002.
- 김태수, 『‘환장노래’의 현장 신원면을 찾아』, 『거창문학』 3집, 거창문학회, 1990.
- 노민영·강희정, 『거창양민학살』, 온누리, 1988.
- 문선영, 『한국전쟁과 시』, 청동거울, 2003.
- 박명립,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2.
- 박명립, 『전쟁, 정치, 그리고 진실-거창사건의 충격, 영향, 의미 서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회 거창사건 학술발표회-거창사건의 정치적·법적 처리과정』, 2002.10.18, 거창문화센터.
- 박명립, 『한국에서의 전쟁, 인권, 평화-탈냉전의 퍼스펙티브에서 본 ‘거창사건’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법과대학, 『거창사건 관련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11.15,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부산일보사 기획연구실, 『臨時首都千日』, 부산일보사, 1985.
- 신승엽, 『‘보고문학’의 활발한 창작을 위하여』, 『문학예술운동』 제2호, 풀빛, 1989.
- 신중신, 『모독당한 땅, 또는 거창 양민학살』, 『晋州文壇』 제9집, 문예정신사, 1991.
- 양영조, 『한국전쟁기 한국 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 『한국전쟁의 재인식-분단을 넘어 통일로』,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 50주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0.6.10,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이기봉 엮음, 『第14聯隊』, 독서신문사, 1988.
- 장백일, 『한국 현대문학 특수소재 연구』, 탐구당, 2001.
- 정경원, 『중미의 증언문학』, 『서어서문연구』 제29호, 한국서어서문학회, 2002.
- 정구도, 『노근리는 살아있다』, 백산서당, 2003.

-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돌베개, 1990.
- 제임스 홉스 지음(유병용 옮김), 『증언사입문』, 한울아카데미, 1995.
- 제임스 홉스 지음 · 유병용 옮김, 『증언사 입문』, 한울아카데미, 1995.
- 조구호, 『역사적 비극의 문학적 형상화-『겨울 골짜기』론』, 『문학한글』 15 · 16호, 한글학회, 2002.
-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책세상, 2001.
- 중앙일보사 엮음, 『民族의 證言』 4권, 1983.
- 차석규, 『남부군과 거창 사건』, 창작예술사, 1988.
- 창간기념 특별기획, 『울부짖는 冤魂』, 부산매일, 1991.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 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한인섭 엮음,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Ⅰ)-신문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한인섭 엮음,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Ⅱ)-국회자료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한인섭 엮음,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Ⅲ)-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한인섭,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판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거창사건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3.3.13,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Abstract>

The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 and the Logic of Testimony Poetry

Lee, Sun-Wook

The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 was the national violence which was committed at the process of the nation-state formulation in the Korean War period. This study seeks to survey the logic of testimony poetry, focusing on the Sin, Jung-Sin's Debasement and Kim, Tae-Su's Azalea of that Valley which poetized the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 by exposing the falsehood of the massacre discourse which enforced the forgetfulness and silence of memory. The discussed conten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thing which the existing genocide discourse internalized by the sight of the nation actively advocated was the logic of silence. The testimony poetry which treats the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 collapse the nation-centered discourse, derive the reconsideration for reviewing history and re-thinking the standardized public discourse, and furthermore intend to combine the witness with the public horizontally, by harmonizing the voice of the witness, the recorded factors, and the utterance of poets. From this point of view, Sin, Jung-Sin's Debasement and Kim, Tae-Su's Azalea of that Valley have the common feature of resistance literature which take the public subject.

Second, in the testimony poetry, the testimony and recorded factors are the strong devices to derive the spot and persuasion, but the description way takes evident differences. In Sin, Jung-Sin's Debasement, the subtitle of which is 'the spot testimony of concealed history of the people', the lyricism based on the writer's imagination, and the excessive desire of

testimony and furious statements coexist. The reason why the fury of testimony is salient is that the writer focuses on the transmission contents and recovery of concealed memory. On the other hand, Kim, Tae-Su's *Azalea of that Valley* rather maximizes the tragic sentiment by dissolving the memory of genocide in lyricism. To that extent, Kim, Tae-Su's testimony poetry harmonize the testimony and literary formulation properly.

Third, the testimony poetry which treat the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 constantly urge the regaining the impaired reputation and reasonable valu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massacred civilian, rather than the nation. Therefore, the testimony poetry have the valuable meaning of practicing discourses to establish the human right and realize the social justice by revealing the violence of the state power. Also, the literary configuration of the civilian massacre imposes the logic of the responsibility upon the contemporary people who live the same historic era. Above all, the fidelity of the testimony makes the public reflect upon the averted reality because of not being the person concerned and recover the concealed history by convincing the contemporary people.

As known broadly, the civilian massacre in the Korean War which has been called as "not known war" is extensive and also the wound of the tragedy is enormous. This study treats the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 focusing on the testimony poetry, but in the future, it's necessary that the research objects be extended. Especially, to research the concerned subject, including poetry and adjacent branches, such as novels, dramas, memoranda, reports, or nonfictions, and documentaries is essential. And the period and range should be expanded from the small area in Geochang to the civilian massacre which was committed in the Restoration and Korean War period. The unique feature of literary discourse which treats the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 can be surveyed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ce of configuration and meanings shown from the various branches. Through this wide frame,

that is 'literature and violence', the following studies can broadly survey the literary achievements of Kyungja Civilian Movement and Gwangju Democratization Struggle, as well as the civilian massacre in wartime.

Key Words: The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 regional literature, national violence, genocide, nation building, testimony poetry, massacre discourse, Sin, Jung-Sin, Kim, Tae-Su